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개관전

숲을 거닐다

주최  더숲문화재단

주관 더숲 북한산 자연미술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개관전

숲을
거닐다

2026.
4. 15. WED

-

6. 15. MON

OPENING
4. 15(수) 02:00 pm

주최  더숲문화재단

주관 더숲 북한산 자연미술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전시장 배치도



입 체 설 치 전	① 고승현
	② 김순임
	③ 김태수
	④ 김희상
	⑤ 문병탁
	⑥ 박봉기
	⑦ 이용덕
	⑧ 이종협
	⑨ 최영옥
	⑩ 허 강
평 면	⑪ 광문상
	⑫ 김태형
	⑬ 이용우
영 상	⑭ 김대성
	⑮ 정태규
	⑯ 홍 균
청 년 작 가 전	⑰ 고요한
	⑱ 김희준
	⑲ 박예지
	⑳ 박정은
	㉑ 서유진
	㉒ 이치현
	㉓ 허태진

차례

Contents

07	인사말 탁무권 더숲문화재단 이사장
09	‘숲을 거닐다’ 전을 기획하며 허 강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예술 총감독
10	전시평론 김성호 평론가
14	도판 16 입체설치전 36 평면 42 영상 48 청년작가전 62 공연
65	작가 프로필

인사말

북한산의 깊은 숲속, 수유 아카데미하우스가 '더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소중한 기억을 품은 채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호흡하려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더숲아카데미하우스 개관전 : 숲을 거닐다〉〉를 개최하며, 이 개관전에 함께 해 주신 23인 작가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1965년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민주주의 가치는 숙의하던 "대화의 성지"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노동자와 여성을 비롯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하던 "민주주의 산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요구하는 대화의 방식은 변했지만, '소통과 공존'의 정신만큼은 변하기 않았습니다. 오늘날 '더숲'이 제안하는 대화는 '숲을 거닐고, 예술과 문화 그리고 사회를 마주하고, 머무르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과 대화하고, 자연 및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감각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개관전 〈〈숲을 거닐다〉〉는 그러한 철학을 시작으로 구현한 첫번째 시도입니다. 23인 작가의 작품이 아카데미하우스 역사와 어울어져 함께 호흡하는 공간에서, 더숲 방문객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예술이 교차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예술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숲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이 도록에 담긴 작품들과 함께 숲을 거닐며,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영감과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1만평 숲속의 복합문화플랫폼으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경험을 제시하고, 세대와 이념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 공간을 지켜온 역사적 층위 위에, 이제 더숲을 향유하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적어내려가겠습니다.

2026. 4.

더숲문화재단 이사장 **탁무권**

‘숲을 거닐다’ 전을 기획하며

북한산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생태계가 잘 보존된 자연의 보고이다. 세계적으로도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국립공원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북한산 자락 공원 안에 자리한 아카데미하우스는 시민사회와 함께해 온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사회적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한국 민주화를 논의하고, 자연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며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나누는 유기적인 장이 형성되어 왔다.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개관전을 준비하며, 잘 보존된 이 공간에서 ‘숲을 거닐다’라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자연을 향유하고,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가 자연과 삶을 다시 사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연미술 작가들과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이곳의 생명력 넘치고 원초적인 자연 공간과 함께 어우러질 것이다.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는 산지 정원이자 사색의 공간이다. 계곡과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 위에서 관람객들은 자연 속을 거닐며 사유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연미술은 자연이 단순히 미술 표현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작품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예술이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온 한국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새롭게 표현되며, 관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미술이기도 하다. 자연과 인공의 재료가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관람객들은 북한산을 거닐며 변화하는 자연의 시간 속에서 경이롭고 아름다운 숲을 만나고, 그 안에 놓인 작품들을 통해 사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전시는 아카데미하우스 경내의 실내와 야외 공간을 아우르며, 입체 설치, 평면, 영상 작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과 유유히 호흡하는 전시로 구성된다.

앞으로 이 공간은 자연 속에서 국내외 작가들이 레지던시와 기획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미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창작의 계기를 모색하고, 서로 연계되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더숲 아카데미하우스가 함께 만들어 갈 이 공간이 사회적 소통의 장이자 예술을 감상하고 사유하는 열린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4.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예술 총감독 허 강

김성호(Sung-Ho KIM, 미술평론가)

I. 역사의 기억을 품은 전시 공간 -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개관전 - 숲을 거닐다》는 단순한 개관 이벤트를 넘어, 한 장소에 축적된 역사적 층위를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읽고 새롭게 써 내려가는 출발점에서 있다. 이 전시는 자연·환경미술의 실천을 통해, 역사적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기억의 공간을 오늘의 시각으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한다. 즉 이 전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화’가 사회적 관계이자 윤리적 가치로 실천되었던 역사적 공간 위에서,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또 다른 방식의 소통과 향유를 실험하려는 시도에 부응한다.

전시가 열리는 ‘더숲 아카데미하우스’의 역사는 1965년 12월 강원용 목사를 중심으로 정식 출발한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1966년 독일의 지원으로 서울 수유리에 건립, 개관한 ‘아카데미하우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은 무엇보다 ‘대화’의 공론장으로 출발한 장소였다. 해마다 20회가 넘는 대화 모임이 열렸던 이 장소는 당대 한국 사회의 갈등과 소외를 다루는 집단적 사유의 장이자, 교회·지성·시민사회가 당대의 윤리와 공동체를 새로 조직하기 위해 고안한 숙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회적 공론장이었다. 즉, 사회적 갈등을 공적 언어로 전환하고 공동의 논의를 도모하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식의 ‘공론장(public sphere, Öffentlichkeit)’이었던 셈이다.

특히 1970년대에는 이른바 ‘중간집단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농민·여성 등 주변화된 영역을 교육과 대화의 형식으로 조직하며, 아카데미하우스를 단순한 연수 시설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즉 이곳은 대화를 통해 억압된 주체의 비판적 의식을 일깨우는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대화적 교육(educação dialógica)’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최근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로 주체가 바뀌면서, 이곳은 이제 ‘체류, 소통, 향유, 그리고 감각적 경험’의 장소가 되었다.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는 이곳을 북한산 전망의 도서관과 서점, 숲 산책·요가·명상, 야외영화, 갤러리, 리트릿(retreat), 강연·팝업 대관이 결합된 복합 체류 공간으로 재조직했다. 숙박과 휴식, 식음과 독서, 전시와 모임, 웰니스와 문화,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하나의 체험 동선 안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는 이 일대의 역사성을 적극 품어 안는다. 2025년 운영된 ‘더숲 역사 산책 #1’은 아카데미하우스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립4.19민주묘지와 근현대사기념관을 걷고 살피는 프로그램이었고, 같은 해의 ‘북한산 느린 숲 산책’은 장소 인근의 자연 생태를 배우고 감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이처럼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는 과거 아카데미하우스가 담당했던 ‘공론장으로서의 대화’의 기능을 체류, 보행, 감

각, 큐레이션된 프로그램과 같은 감각적 실천으로 번역하는 복합 문화 체류 플랫폼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했다.

II. 숲을 거닐다 - 자연, 기억, 공동체의 장소 특정적 실천

더숲 아카데미하우스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번 개관전은 ‘장소 특정성(site-specific)’이다. 초기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의 대표 작가인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와 로버트 어윈(Robert Irwin)이 작품과 물리적 현장, 혹은 지각적 환경의 불가분성에 주목했다면, UCLA의 미술사학자 권미원(Miwon Kwon)은 장소를 역사적 기억, 제도적 맥락, 사회적 관계와 담론이 중첩되는 장으로 확장해 이해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시는 장소를 역사적 기억과 제도, 사회적 관계와 담론이 중첩되는 복합적 장으로 파악하는 권미원의 장소특정성 개념과 긴밀하게 호응한다.

그도 그럴 것이 《숲을 거닐다》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면서도 생태계가 잘 보존된 북한산, 시민사회와 함께한 역사적·사회적 공동체의 공간이라는 이중의 층위를 지닌, ‘확장된 장소특정성’을 실천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 주제 ‘숲을 거닐다’는 자연과 사회, 생태와 역사, 감각과 기억이 중첩된 이 장소의 조건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전시의 핵심 조건으로 전면화한다. 특히 여기서 자연은 더 이상 재현의 대상이나 풍경의 소재로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은 작품의 재료이자 환경이며, 관객의 이동과 감각을 조직하는 실질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전시는 자연을 미술의 외부에 놓는 전통적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그 자체가 전시의 일부가 되고 관객의 신체적 경험이 미적 의미 형성에 개입하는 보다 확장된 자연, 환경미술의 관점을 지향한다.

이 전시에서 중요하게 호출되는 ‘거닐기’의 행위는,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도시에서의 걷기(Marches dans la ville)’에서 강조한 “공간은 실천된 장소이다(L'espace est un lieu pratique)”라는 통찰처럼, 공간을 단순히 통과하는 이동이 아니라 장소를 신체적으로 읽고 다시 쓰는 실천과 맞물린다. 관객은 숲길과 실내외 전시 공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자신의 보행과 시선, 체류의 리듬을 통해 이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직조하게 되는 까닭이다. 여기서 관람은 몸으로 장소를 통과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 그 자체가 된다. 즉 고정된 화이트큐브의 관람 질서보다는 장소를 따라 분산되고 이동하는 감각의 구조를 택함으로써, 장소 특정적 전시가 요청하는 관계적·과정적 경험을 강화한다.

한편, 《숲을 거닐다》는 전시와 함께 부대행사로 평론가, 기획자의 세미나와 워크숍, 지역민과 작가의 공동작업 프로그램,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자연생태미술체험프로그램 등 다층적 문화 행위를 수용한다. 이를 통해 이 전시는 단일한 미학의 전시라기보다 자연환경미술, 설치, 공동체 기반 실천, 세대 간 연계를 함께 도모하는 복합예술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가히 ‘자연, 기억, 공동체의 장소 특정적 실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III. 숲을 거니는 작품들-출품작 소개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중진, 원로뿐만 아니라 청년 작가들까지 두루 아우른다. 전시는 실내 전시장인 예배당(실내전1)과 새벽의 집(실내전2)에서 13인의 작가가 입체 설치, 평면,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선보이고, 약 1만 평 규모의 야외 공간(야외설치전)에서 10인의 작가가 입체 설치작품을 펼쳐 보인다.

《실내전1》, 《실내전2》에서는 사진, 회화, 영상, 조각, 설치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시각화한다. 자연 재현에 기초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참여 작가들만의 특유한 개별적 조형 언어와 그것이 전하는 생태적 메시지는 주목할 만하다.

작품을 보자. 수목으로 숲의 생태적 현장을 화선지 위에 흙뻑 담아낸 꺾문상의 회화, 전국 각지의 무덤을 찾아 삶과 죽음 사이의 풍광을 담은 홍균의 흑백 사진, 백송의 사계를 겹침과 복수의 시점으로 포착하여 시간 속에 잠복해 있는 풍경이나 흔적을 건져 올린 김대성의 사진은 대표적이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바닷가 풍경을 느린 속도로 선보이면서 공포와 숭고의 체험을 겹쳐 놓은 정태규의 싱글 채널 비디오 영상과 더불어 브론즈로 자연 형상을 만들거나 자연석으로 추상 형상을 만든 김희상의 조각 그리고 실제 깃털을 나뭇잎처럼 보이도록 돌멩이, 무명실, 와이어로 혼성해 만든 김순임의 식물 형상 설치는 또 어떠한가? 이들 작업에서는 각각의 특유의 장르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의 재현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동하는 자연 생태에 관한 메시지까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코코넛 열매를 머리에 이고 10초 안에 영상 자세를 취하는 퍼포먼스를 기록하여 선보인 이응우의 영상 작업은 유카탄 반도의 사구호를 배경으로 했던 당시 퍼포먼스의 환경과 작품을 선보이는 더숲 아카데미하우스의 환경 사이를 잇는 '무념무상을 통한 공존과 공생'이라는 자연의 메시지를 넉넉히 전한다.

매체의 혼성이나 복합적인 조형과 메시지 장치를 통해 자연 본성을 성찰하는 작업 또한 있다. 장치 위에 채색화로 인간과 권력의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자연의 본성에 관해 성찰하는 김태형의 회화, 그리고 자연의 유기적 형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최영옥의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조각과 자연의 생성소멸 본성처럼 창조를 위한 와해의 과정을 탐구하는 싱글 채널 비디오가 그러한 작품들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연의 소리를 전하고 관객 참여를 통해 그것에 화답하는 고승현의 가야금 형태의 소리 조각이나 송화가루가 묻은 검정 장화 수백 켤레를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 휴과 노동 그리고 예술 사이에서 작동하는 생태적 사유를 건인하는 이종협 설치 작품 또한 자연 공존과 공생의 메시지 차원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관객은 이 실내전에서 두 청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죽은 나무의 표면에 무수히 많은 못을 박아 시신에 엮을 하는 장례 의식과 유사한 수행의 퍼포먼스를 행하고 자연과 인공이 함께하는 공생의 의지를 선보이는 고요한의 조각과 함께 폐지, 골판지, 고물, 철망, 철사, 마스크 테이프를 덧붙여 만든 거대한 토끼 형상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전하는 박정은의 조각이 그것이다.

《야외설치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자연의 생명력을 품은 작은 씨앗과 같은 유기적인 형상을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같은 차가운 매체로 표현한 김태수의 추상 조각이나 휘어진 자연목을 서로 엮대어 숲의 정령과도 같은 동물 형상을 만든 문병탁의 구상 조각은 자연의 영적 생명력을 전하기에 족하다. 또한 박봉기의 작품은 대나무를 엮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을 자연환경 속에 설치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을 자연과 함께 숨쉬고 공생하는 대지미술로 전환한다. 허강의 조각은 단순하고 오묘하다. 잠자리 날개와 같은 곤충의 미시적 세계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거대하게 확대하여 선보여, 자연 속 프렉탈 이미지와 같은 숨겨진 자연의 질서와 더불어 유동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세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까닭이다.

이 《야외설치전》은 특별히 청년 조각가들의 작품을 대거 포함한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용접 기법을 통해 자연 속에서 마주한 다양한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김희준의 조각과 금속을 녹여 증식하는 방식으로 식물 이미지를 확장해 나가는 이치현의 조각 그리고 가느다란 스테인리스 스틸봉을 용접을 통해 지속적으로 쌓아 올려 기다란 다리를 가진 말의 형상을 선보이는 박예지의 조각은 표정 없는 차가운 재료 위에 불규칙한 유기적 질감과 함께 자연의 따스한 생명력을 덧입혀낸다. 또 다른 청년 작가 서유진은 철로 된 골조 위에 철판을 덧대어 만든 화려한 색상의 동물 형상을 선보이고, 하태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나뭇잎들 형상을 기초 모듈로 삼아 사람과 동물 형상을 선보이면서 인간의 자연 공생의 메시지를 시각화한다.

이러한 실내전1, 2, 야외설치전의 프롤로그 성격으로 진행되는 공연예술가 조유진, 조유미의 오프닝 퍼포먼스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숲이라는 자연을 맥락화한 다양한 출품작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적이고 원초적인 몸짓을 통해 자연, 역사, 기억을 넘나드는 메시지를 전한다.

에필로그

글을 마치자. 기획전 《숲을 거닐다》는 단순히 자연을 재현하는 전시에 머물지 않는다. 자연적 재료뿐만 아니라 인공의 산업 재료 그리고 문명의 부산물인 오브제들이 한데 모여 이루는 공존과 공생의 세계는 자연환경 미술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자연환경 보호의 편협한 구호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자연-예술, 그리고 역사의 기억과 공동체 사이의 유대, 공존, 공생의 문제의식을 두루 호출한다.

결국 이번 개관전은 새로운 공간 '더숲 아카데미하우스'의 문화적 미래를 여는 의미 있는 서막이자, 장소의 기억을 오늘의 공공적 경험으로 다시 조직하는 예술적 실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도판

고 승 현

Ko, Seung Hyun

자연은 스스로 호흡하며 울리는 거대한 악기와 같다.

풀벌레의 미세한 떨림과 산새의 맑은 울음, 바람과 물의 흐름은 하나의 음향 풍경을 이룬다. 나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매개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사람이 연주하기 전에 바람이 먼저 연주자가 되기도 한다.

작업의 단서는 한국 전통악기 가야금에서 얻었다. 맑고 절제된 그 음색은 자연의 숨결과 깊이 공명한다. 그러나 나는 전통의 형식에 머물지 않는다.

현장에서 만난 나무를 재료로 삼고 나무 형태의 원형을 나무의 종류와 결, 밀도에 따라 제작 방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음색 또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 자연이 이미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듯 그 속에서 울리는 나의 가야금 또한 서로 화답한다. 자연과 함께 울리는 소리는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다.

그 울림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백년의 소리 | 500×700×3300mm | 오동나무 | 2023

김 순 임

Kim, Soon Im

'나는 돌'은 내가 돌이요 또 '돌이 난다'는 중의 적 이름이다. 작가가 머문 지역의 돌맹이를 만나, 무게로 인해 가장 낮은 곳을 굴렀을 돌맹이들이 가볍게 공중을 유평하도록 설치한 작업이다.

이번 설치에서는 북한산의 작은 돌맹이에서 싹트고 솟아올라 날개를 피워, 자나난 깃털이 식물의 성장, 나무, 유평하는 땅, 날개의 이미지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북한산의 작은 돌맹이, 작은 땅, 작은 몸은 응축된 에너지가 뿔어나가 있어 되고 날개가 되어 유평하는 생명이 되고 숲이 된다



나는 돌 - 북한산 | 가변설치 | 북한산의 돌맹이, 무명 실, 와이어, 깃털 | 2026

김 태 수

Kim, Tae Sue

작품은 일상의 미시적 지평에서 길어 올린 생명력을 우주적 질서로 승화시킨 '미시적 숭고'의 결정체다. 작가는 산책 길에서 마주한 들꽃이나 세포의 분열 같은 생존의 의지를 포착하여, 차가운 금속 판재를 굴절하고 접합하는 엄격한 공정을 거쳐 생명력을 품은 유기적인 3차원 추상으로 변모시킨다.

작품의 기저를 관통하는 유려한 곡선과 층층이 쌓인 지층의 형상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듬는 모성적 서사와 현대적인 구조미를 결합하며, 부드러우면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의 강인함을 시각화한다. 특히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 현대적 감각의 색채가 직조해내는 강렬한 빛의 파동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을 넘어 리드미컬한 생명의 소리로 공명하며 관람 객을 영성적인 성찰의 세계로 인도한다.



ECOFLOW-Aeonis Sprout(영원한 행복의 씨앗) | 3080×1200×3800(h)mm | Painted Stainless Steel | 2016



김 희 상

Kim, Hee Sang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은 어쩌면 무용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무용함 또한 유용한 일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이 일은 나를 억압하지 않는다.
삶에서 멀어지는 대부분의 다른 일들은 종종 나를 억압한다.

- 김희상 작가노트 -



Untitled | 300×300×360mm | 대리석

문 병 탁

Mun, Byoung Tak

인간의 본질이 자연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조각과 설치 작업의 출발이다.

그것이 어떤 동물의 형상이건 형체를 띄지 않는 구조물의 형태를 가지는 간에 인간과 함께하는 자연의 요소들을 사람들이 보며, 만지면서 느낄 수 있도록 계획 한다.

회귀-숫아난 뿔을 가진 숲의정령 22-4 | 2950×600×2380(HDmm) | 나무 | 2022



박 봉 기

Park, Bong Gi



내 작업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은 바람과 햇빛, 습기 속에서 다시 숨을 쉰
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반복되고 이어집니다.
제 작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대지 위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쉰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호흡 breath | 5m범위설치 | 대나무 | 2026

이 용 덕

Lee, Yong Duck

나의 작업은 직선으로 뻗어 나아가는 나무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이를 구부리거나 휘어서 쌓아 올려 무형의 자연의 이미지를 유희화 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쌓아 올린 표면의 단층들은 마치 물결의 파장처럼 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확산을 반복한다.

한편으로 이는 가류를 연상시키거나 시작도 끝도 없이 순환하는 피비우스 띠를 연상케 하면서 무한함을 보여주는 형태를 통하여 응축된 생명력이 발산하는 순환적 시간을 표한다.

거대한 격랑이 대기를 휘감으며 굽이치듯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인 형태는 언제든지 주변공간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팽팽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외부의 운동에너지가 안으로 응축되며 더욱 견고한 형태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때로는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되며 공간을 새롭게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육중한 중량과 공간을 점유하는 체적은 작품의 기념비성을 더욱 고양시킨다.



the accumulation of time(시간의 축적) | 500×1200×290(H)cm | 미송(pine tree)

이 종 협

Lee Jong Hyup

생태적 사유로 쓴 물질의 시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것 같지만 확연히 '상호의존'되어 있는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종협님의 예술에서 말하는 '사이'라는 개념이다. 바로 이 선을 경계로 하늘과 땅이, 자연과 인간이,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고 순환한다. 인간과 자연은 이 분법적으로 분리되었다기보다, '사이'를 통해 연결되고 순환하는 물질이다. 땅의 열기가 대기의 공기를 덥혀 하늘의 구름을 모으고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대지에 식물의 싹을 틔게 하듯이, 이처럼 '사이'는 분리가 아닌, '연결'의 개념이다. 이는 인간과 모든 다른 종들이 이 행성에서 동등하게 공존하는 생태적 삶의 모색하는 '대칭적 인류학의 사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계(사이)'의 사유는 이종협님의 작업을 자연에 대한 미적찬양의 차원이 아니라 생태학적 차원에서 재독해할 단서가 된다. 그는 이 '경계'에서 우리에게 생태적 성찰의 공간을 연다. 그가 여는 공간은 세상을 이루는 미세한 흐름, 상호작용, 그리고 올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지구의 삶을 지탱하는 섬세하고도 필수적인 관계들에 조용하기를 요청한다.

- 이종협님의 자연과 미술의 '사이'에서 -



송화 - 자연과 미술의 '사이'에서 | 가변 설치 | 송화, 장화 (200여개) | 2025

최영옥

Choi, Young Ock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임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수많은 나무 조각이 모여 단단한 형상을 이루듯
내면의 깊은 울림은 흩어졌던 삶의 가치를 새로운 울림을 발견하고자 한다.
외면의 파편들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Inner Voice | 250×60×60cm | Wood | 2025

허 강

Hur, Kang

자연은 우리에게 이용의 대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다. 인간 본연의 자연성이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연 파괴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자연미술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이 잊고 있는 자연의 서정성을 환기 시키고자 한다. 우주 속에서 자연의 가변성과 대기의 흐름에 따라 유동하는 대상을 통하여 표현하여 변화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사유의 정원 | 124×400cm | Steel Cutting

꺈문상

Kwak, Moon Sang

유흡자적 숲을 산책하며 마주하는 모든 것은 살아 숨쉬는 생태의 현장이며 미지의 세계이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드리우는 빛의 산란, 바람에 떨리는 풀섬과 나뭇잎의 울림, 온몸을 감싸는 숲의 기운은 자연의 언어이고 나를 새롭게 충만하게 하여 잠든 의식과 감각을 깨우며 내면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숲을 걷고 있는 나의 발걸음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깊고도 끊임없는 이끌림으로 순간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며 근원적인 물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유흡자적 숲에서 | 900x300cm | 화선지에 수묵 | 2025

김 태 형

Kim, Tae Hyung

나의 작업 화두는 권력과 사람이다. 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와 부패의 속성은 인간의 본질이다. 권력은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많은 변화를 거쳐 다양한 형태로 변형 되어 왔을 것이다. 권력에서 파생되는 현상들은 전쟁과 죽음, 난민 피폐한 삶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라 생각한다. 그러한 인간의 삶은 나의 그림에서 피폐한 형상들로 표현된다.



People-2025 | 104×97cm | 장지에 채색 | 2025

이응우

Ri, Eung Woo

유카탄반도의 사구 호를 배경으로 코코넛 열매를 머리에 이고 10초 안에 명상 자세를 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제한된 조건 속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잡다한 상념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상태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였다.



코코넛 명상(Coconut Meditation) | 멕시코 아칼키 명상센터(Akalki Meditation Center) | 2019

김 대 성

Kim, Dae Sung

이 작업은 자연을 하나의 단일한 시점으로 포획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이는 것'이란 언제나 복수의 방식으로 마주쳐지고, 기억되고,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각자의 시선은 삶의 경험과 관계에 의해 조건지어지며,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기록이 아니라 장면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속에서 회미하게 되돌아오는 잔상—정신적 이미지의 형태로 남는다.

서로 다른 감각과 인식의 결을 한 화면에 겹쳐 올리는 방식은, 시각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관계들의 장으로 다룬다. 중첩된 구성은 개별적 시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식의 가능성을 시험하며, 부제가 여전히 압력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감각되는 순간을 호출한다. 그렇게 모여든 다층의 시선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충돌하고 화해하며, 단일한 응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와 민감도를 만들어낸다. 이 이미지는 '하나의 눈'이 아니라 '여러 시선의 마찰과 공명'으로 발생하는 현존의 방식—겹침 속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만남의 조건을 관객에게 제안한다.



정 태 규

Jeong, Tea Kyu



화양연화(花樣年華):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

그래, 어쩌면 그때가 나의 화양연화였고, 지나고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화양연화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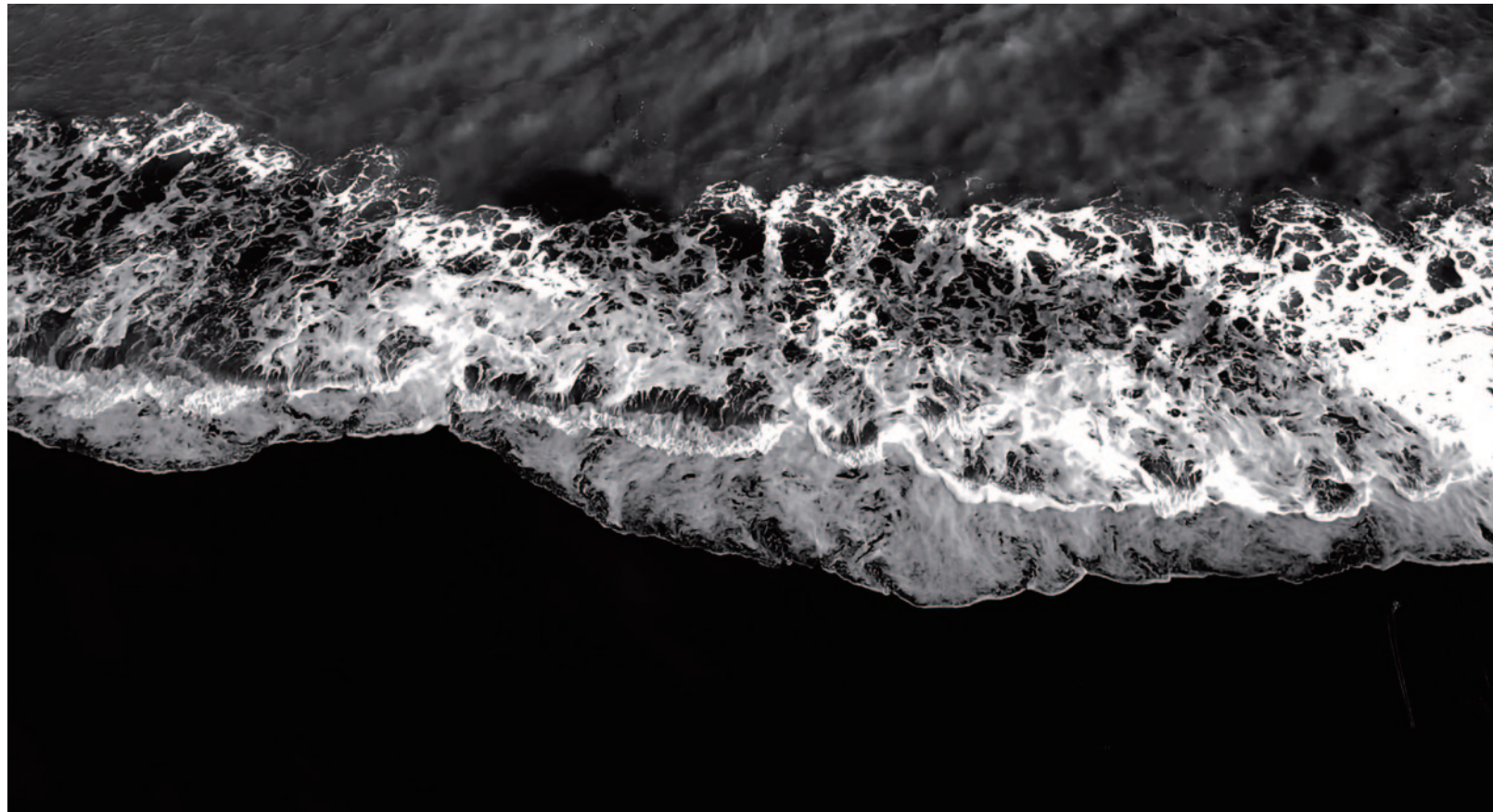
나는 종종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옅은 회색빛으로 보였던 순간.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나날 중, 나는 바닷가에서 스스로 마지막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나를 다시 작업하게 하였고, 그 후로 오랜 시간 깊은 우울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호접몽'이라는 주제로 전시하며 작업을 멈추고, 수많은 생각만을 하며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 '호접몽'을 촬영하던 당시의 처참했던 순간이 나에게 '화양연화'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레임으로 다시 촬영을 이어갔고, 그 영상을 '자극적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선보입니다.

어쩌면 이득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도 화양연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모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홍 군

Hong, Gyun

나의 사진은 무덤의 단순한 그 형태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한 것으로 제목이 '삶은 잠, 사랑은 꿈'이다.



무덤 | 1200×1650cm | Pigment Printing

고요한

Ko, Yo Han



“인간의 허위의식에 대한 되돌아보기는 고요한의 작품 ‘죽은 나무를 위한 기념비’에서도 절실하다. 되돌아보는 행위는 상생으로 가기 위한 공조과정이다. 고요한의 작품은 스러진 자연물에 수없이 못질을 수행하는 퍼포먼스가 동반된다. 작가는 평범할 수 없는 인간으로 결국 고뇌의 주체이고 수행자다. 인간이 벌이는 행위적 변형과 자연 그대로인 존재의 변형을 보여주는 행위는 사유의 적막을 깨는 일탈이다. 이 퍼포먼스는 고요한의 영적 바탕에서 우러나는 실체인 까닭으로 고요한의 감정은 관람자에게도 유사한 감정으로 전이되기 마련이다. 관람자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물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이 지닌 통증의 근원도 되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교감은 관람자의 서정을 깊고 깨끗하게 치유한다.”



죽은 나무를 위한 기념비 | 2100×400×400cm | 나무, 못 | 2024

김 회 준

Kim Hoe Jun

본인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작가적 관점의 재해석을 거친 비구상적 형태로 표현합니다. 익숙한 대상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보편적인 형상 너머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작품의 표면은 용접 기법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불규칙한 질감과 공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거칠고 불규칙한 표면은 정형화되지 않은 생명력을 상징하며, 금속이라는 차가운 재료에 작가만의 고유한 개성과 감수성을 투영하는 조형 언어입니다.



여정_2025 | 150×70×70cm | stainless steel | 2025

박 예 지

Park, Yea Ji

흐르고 또 켜진다. 사라진 듯, 감춰진 듯 흩어져 있던 시간들은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나는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해왔지만, 그것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층위의 이야기이며, 말(馬)의 형상과 거친 질감 사이에서 왜 자꾸 관계에 집착하는가 스스로 묻곤 했다. 해체와 변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동물적인 잔상은, 결국 '말'로 소통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놓지 못하는 말과의 관계가 끈질기게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최소한의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이 형상은 더 이상 말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스스로를 지탱하기를 바라는 긴장 상태 위에 세워진 조각적 장치다. 전시 제목 '흐름따라'는 형태가 말에서 풀려나고, 다시 해체되고, 다시 모이는 과정을, 곧 정체성과 관계성이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수행적 장면으로 제시한다. 나는 관객이 더 이상 멀리서 관람하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들 사이를 통과하고, 촉각적으로 접촉하며,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관계의 거리를 재배열하는 경험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신체적 개입을 통해 이 형상이 말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고, 기대고 충돌하는 여러 인간의 몸으로 읽히며, 관계적 조각으로 전환되기를 상상한다. 이 작업은 조각이라는 언어를 통해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몸으로 소통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실험이자, 형태와 관계가 스스로 영키고 풀려나도록 두려는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Following the flow | 288×88×160cm | stainless steel | 2023

박정은

Park, Jeong Eun

내 창작의 원동력은 사랑의 감정이다. 나에게 사랑은 고통감을 증폭시키며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연인과 감정을 교류하며 믿음과 안정감을 느끼고, 외로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슬픔, 분노, 질투, 두려움 등 괴롭고 폭발적인 감정을 마주하며 나약한 자신을 확인하게 되기도 한다. 감정은 초 단위로 요동친다. 팔다리가 갈려 나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력과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도 우리는 영원하고 강하다는 착시를 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작품을 제작할 때 온몸으로 내 작품을 지탱해야 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작은 지점을 찾아야 한다. 마치 돌담을 쌓아 올릴 때처럼. 그 과정에서 나의 토끼들은 넘어지고 찢어진다. 내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장면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불변의 상태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잠시나마 균형을 잡고 숨을 돌리고 있는 찰나의 순간이다.



Hunger | 2,2(h)×2×1,7m | 철망, 철사, 스폰지, 고물, 마스크테이프 | 2025

서 유 진

Seo, Eu Gene

자연이라 불리는 나무, 흙, 돌이 지구의 산물이라면,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구성된 기계 또한 인간을 매개로 한 자연의 또 다른 산물이다. 나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 속에서 폐모터사이클의 파편들을 '자연의 재료'로 간주하고, 그것을 통해 생명체의 형상을 제작하는 조형 언어를 구축해왔다.

예측 불가능한 속도의 감각은 일상속에서 무뎠던 생존 본능을 극대화시킨다. 모터사이클을 타는 경험은 죽음과 생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인식하게 만들며, 순간의 선택이 생명과 직결되는 폭발적인 집중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극도의 감각적 각성과 에너지야말로 내가 주목하는 '생명력'의 본질이다. 모터사이클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다.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더 이상 기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 같은 공생적 관계는 인간-비인간 간의 경계를 흐리며, 나에게 있어 기계는 더 이상 비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생명력 | 150×60×80cm | Acrylic, Steel, Stainless steel | 2022

이 치 현

Lee, Chi Hyun

나의 작업은 금속을 녹여 증식하고 확장을 통해 진화하려는 식물의 생존 방식을 이야기하며 현재 진행형으로 끝이 없는 생존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의 순환과 변화를 상징하며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식물들은 때론 환경에 맞추어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며, 단일 개체가 아닌 여러 개체가 공존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생명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끝없는 진화 | 1200×2500×1840(h)cm | stainless steel | 2025

허 태 진

Hur, Tae Jin

작업의 소재는 나뭇잎, 꽃, 나무가지들이 결합 되어 중첩된 이미지이다. 자연 속에 여유가 가득 담긴 생명의 기운을 알릴 수 있도록 사람과 동물 위주로 조각하고, 현존하는 나뭇잎과 꽃 그리고 나무가지들을 미니멀하고 모던한 느낌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레이저 커팅을 하여 구부리고, 망치질하고 용접을 통해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을 갖게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눈이 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잎사귀의 중첩이 나의 컨셉이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잎사귀의 모양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형상을 띄면서 자유와 안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보면서 각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꿈, 희망, 자유와 여유로움을 느꼈으면 한다.



공존 | 200×300×300cm | Stainless Steel, LED, Urethane Paint | 2025

조유진, 조윤미

Cho, Yu Jin / Cho, Yun Mi

머무는 몸

-기억은 땅에 스며들고, 몸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북한산 자락이 품고 있는 역사적 기억과 자연의 시간을 머무는 몸의 움직임으로 마주하는 작품이다.

숲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축적된 장소이며, 거닐다는 외침이 아닌 성찰의 움직임, 투쟁이 아닌 기억을 통과하는 몸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혁명 이후 남겨진 침묵과 신념을 품은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자연 앞에 서는 방식을 몸의 움직임으로 사유하는 과정이다.

북의 울림과 장삼의 흐름 속에서 기억과 자연이 교차하는 지점을 조용히 드러낸다.



고승현

1981~2025 야투자연미술연구회 기획·운영 / 1995~2025 한국, 영국, 리투아니아 등 14회 개인전 개최 / 2008~2025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장 / 2014~2025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 기획·운영 (170회) / 자연미술관 Ko 관장

김순임

개인전 2025 〈흰〉 Shun Art Gallery Tokyo, 도쿄 일본 등 30회 / 주요전시와 프로젝트 380회 / 2025 YATOO Col-lective (South Korea) and the Broken Forests Group (Canada) 아외설치프로젝트, 테마가미 카리부산, 온테리오, 케나다 / 2025 제1회 환경미술비엔날레, 니즈노브고로드, 러시아 / 2024 제주비엔날레, 제주도 한국 / 수상 2022~2023 아르코 〈작가조사-연구-비평〉 작가로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 / **레지던시프로그램** 뉴욕ISCP 외 국내외 장단기 21회 / **저서** 2024〈Streamy Space ~Junjucheon〉2023 〈Streamy Stone〉, 2022 〈On the Road〉, 2020 〈Weave on Nature〉, 2014 〈KIM SOONIM I〉 〈KIM SOONIM II

김태수

1992 The New York Academy of Art, Sculpture 전공 / 1986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조소 전공 / 2006 Residency Artist - Vermont Studio Center / 2002 Sculpture Workshop - 'Human Nature, Sculpture Nature, Stone Nature' / 2002 The Carving Studio and Sculpture Center, West, Rutland, Vermont, U.S.A / **개인전 15회** 2023 'Nature's Secret, 표 갤러리, 서울 (15회) / 2019 ECO FLOW- See, Look and Find, 표 갤러리, 서울(14회) / 2016 The Eco Flow Space's 5th Season, 표 갤러리, 서울(13회) 등

김희상

개인전 10회 / 2012 국제아트페어 참여 / 2012 AIA보험 본사빌딩 공공미술 설치 / 2012, 2013 서울코엑스 국제아트페어 / 2014 국제패스포드 초대전 / 2014 국제자연미술 비엔날레 레지던시 / 2015 국제아트페스티벌 / 2016~2017 국제조각심포지움 선정작가 / 2018 프랑스파리 초대전 / 2018 몽골울란바트라 국립미술관 초대전 / 2018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예술대학 초청 세미나발제자가

문병탁

개인전 6회 / 2025 《베이강다오 고래 생태 예술프로젝트》 베이강다오, 중국 / 2024 《갈등과평화:공존의 이면》 국립미술원, 비엔티안, 라오스 / 2023 《노래하는 땅》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3, 4, 5, 부산 / 2022 《광양시 유당 숲정원을 거니는 예술동물展》 유당공원, 광양 / 2021 《우포생태미술마을 프로젝트》 우포늪생태체험장, 창녕 외 270여회 전시

박봉기

2026 타이완 웨진항 등축제(옌수이/대만) / 2026 바깥미술 자라섬전-깊은 강(자라섬/가평) / 2026 설치미술로 본 당신의 거제도(거제문화예술회관/거제) / 2025 관두국제자연미술제-Nature as Solution(관두공원/대만) / 2025 노원달빛산책-모두의 달(노원구 당현천/서울) / 2025 예술로가파도-자연미술프로젝트(가파도/제주) / 2025 Re-Chiayi Art in Countryside 자이현 대지미술제(자이현/대만) / 2025 바깥미술 두물머리전-이곳 이 땅(두물머리/양평) / 2024 La Fete de Mai-Nature Art Festival(Gesves/France) / 2024 노원달빛산책-숨(노원구 당현천/서울)

이용덕

5회의 개인전과 KommageneBiennial(아디야만.트루키에), 에치코프마리 트리엔날레 (니가타 현, 일본),〈경기가카이브-지금〉(경기 상삼마당.수원시) 외 다수의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 하였으며 현재는 여전히 물성과 시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용인에서 작업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경기도 미술관, 일산 킨텍스제 2전시장, 영동 조각공원, 신세계명품관 등에 작품이 소장 되어 있다.

이종협

2025 생태적 사유로 쓴 물질의 시 - 이공갤러리/대전 / 세 곳의 영토로부터 (Across Three Borders) - 2025대전 / 2025 At the Border of Life 2 - 요코하마 시민홀/요코하마 / 2024-At the Border of Life 1 - 인사아트센터/서울 / 2024 他動 - 이공갤러리/대전

최영옥

2019 다시 안으로(길상 갤러리) / 2010 잔가지가 기둥을 키우는 줄도 모르고....(쌍리갤러리, 대전 / 모스크바 국립인쇄대학, 러시아) / 2004 수평선인가? 지평선인가?(유진갤러리 대전) / 2002 개인전(인사갤러리, 서울) / 다수의 전시회와 야외 설치 및 러시아 등에서 활동

허 강

Moscow State University of Printing Art, Art Ph.D / 개인전 21회 서울, 대전 ,교토, 도쿄, 모스크바 / 동경 히키 국제 자연미술 레지전시, 동경시 / 모스크바 국제자연미술 passport운영위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란 노마딕포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에네르기 대전프로젝트, 대전시립미술관 / 헝가리 에게르 국제 레지전시, 에게르시 / 두핀 국제 자연미술 레지전시, 펠리코트로브 / 불가리아 도마아트 passport, 총감독, 대전문화 재단 / 도마아트 passport, 운영위원장, 대전문화재단 / 글로벌로마딕 인디아, 인도 구자라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글로벌 노마딕 프로젝트, 남아프리카류 / 더숲아카데미하우스 예술감독

곽문상

1981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 창립전 / 2022, 2023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프레비엔날 큐브전 / 2022 YATOO 자연미술 INDOOR 6인전 / 2022, 2023, 2024, 2025 야투 자연미술연구회 세계적 워크숍 / 2022 Global Nomadic Art Project, Mongolia / 2023 Global Nomadic Art Project, France / 2025 International Art & Architecture / 2025 Workshops and Exhibition 2025 / 2025 Sunandha Rajabhat University Bangkok Thailand / 2025 International Exhibition on the Occasion of World Art Day 2025. / 2025 Gallery X, Silesian University Poland / 2025 개인전 이공갤러리 / YATOO 자연미술연구회 회원

김태형

대한민국 청년작가전(평택호 예술관) /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광주 문예회관) / 자연으로부터의 야투 10인전 (일본 동경) / 야투전(일본 동경) / NaturKunst Forum 2007/독일 / 아트캠프/루마니아 / 자연미술 기획초대전/독일, 베를린

이응우

자연미술 연구 45년, 2000년 이후 자연미술 확산을 위한 메신저로 활동 중 / 개인전 13회(한국, 일본, 튀르키예 등) / 한국미술협회 설치분과 부위원장 역임 / 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 회장 역임(2010~2023) / 세계 예술유목 총감독 역임(2014~2018). 인도, 이란, 유럽 7개국 개척 / 공주문화재단 이사,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겸임교수 역임 / 현재 공주문화원 이사,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 / 저서_야투·자연미술 운동사(2024년 공주문화원 발행)

김대성

2025 야투 자연미술전 · 갤러리 Ko, 공주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 2025 2025 MONAF · 모나밸리, 아산 · 모나밸리 / 2024 사진으로 기록하는 왕도심 이야기 · 대동길 작은미술관, 공주 · 공주시 / 2024 솔갤러리 초대전 “Hiver” · 솔갤러리, 대전 · 솔갤러리 / 2024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성과보고전 ·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공주 ·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 / 2023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미술큐브전 “12x12x12+자연” · 울진연호문화센터, 울진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2023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미술큐브전 “12x12x12+자연” · 금강자연미술센터, 공주 · 한국자연미술가협회 / 2022 Hors du Temps · 니콘, 대전 · 니콘대전서비스센터 / 2022 Exposition des Étudiant · es du master EDAM · Université Paris 8, France · Université Paris 8

정태규

개인전 2023 여주 미술관, 영진 철강 미술관 / 2019 도쿄 카즈시카 심포니홀 / 그룹전 2022 평범한 일상, 한국 공예 박물관 / 2021 따스한 재생,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 2020 가법거나 유연하거나, 강원 국제 조각 비엔날레 / 2019 우리의 반영, 오스트리아 페르히틀스도르프 시립 미술관 / 2018 제33회 상파울로 비엔날레평창 동계 올림픽 특별전, 삼탄아트마인 / 2017 제15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 2017 미디어 전시, 스위스 비엘 · 빈 공공미술공간 주라프라츠 / 2017 제1회 리브노 국제 그래픽 아트 트리엔날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15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 2014 제7회 트빌리시 국제 미술제, 조지아 국립 박물관 / 2015 사라예보 국제 겨울 미술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시립 미술관

홍 군

개인전 XV(대전 엑스포) 현대화랑 대전 / 장바우사람들 시민회관 대구 / 담예대한 보고서 봉성갤러리 대구 / 원형의 전설 시민회관 대구 / America town Lux Gallery, 서울 인사동 / 미디어 미래어 시민회관 대전 / 무덤 (삶은 잠, 사랑은 꿈) 모란미술관 인사동 / 6월 수평의 시간 스페이스씨 대전 / 그룹전 2025 대전 국제포토 특별전 외 그룹전 다수

고요한

2025 고요한 개인전, 존재의 아이콘, cnr갤러리, 서울 / 2024 고요한 개인전, 공주 차세대 작가전 “자연을 ‘心’ 다”, 고마아트센터, 공주 / 2024 자연의 영토展,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서천 / 2024 도시예술치유 ‘공유정원:비하우스’, 태화강국가정원, 울산 / 2023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 기념 지역작가 초대전, 국립생태원, 서천 / 2022 International Nature Art Photography Exhibition, 튀르키예 / 2022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몽골, B Contemporary Art Gallery, 몽골 / 2022 콤마게네비엔날레 ‘Hayali Bir Uygurlik’ 카타성, 튀르키예

김희준

개인전 2024 Border_stand/ 경계_서다, 갤러리 벨라, 인천 / 2021 Door_2021[L.M.I.M.], litt space, 인천 / 2020 경계, 갤러리 1898, 서울 / 2017 기억되는 공간, 갤러리 나무, 인천 / 2015 [PAIN], 갤러리1898, 서울 / 2015 [ITIN-ERARY], 스페이스빙, 인천 / 2009 [DOOR], A1갤러리, 서울 / 단체전 120여 회

박예지

박예지 작가는 프랑스 École Boulle에서의 공간 · 디자인 전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입체적 조형 언어를 구축해 온 작가이다. 용접이라는 테크닉과 금속의 물성을 통해 동시대의 사회적 긴장과 정서를 포착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한다. 말(馬)과 말(言)의 중첩을 매개로 신체, 언어, 감각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하며, 그 과정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작업하는 행위 자체에서 관계와 기억, 감정의 찰나가 금속의 선과 질감으로 응축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조형 언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박정은

박정은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적인 비주얼 아티스트이다. 창작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으로 도자기부터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랑, 자연, 변화의 주제를 탐구한다. 박정은은 토끼를 스토리텔러로 활용해 정상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작가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탐구한다. 박정은은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평범함 속의 특별함을 보고 종종 간과되는 순간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자 한다.

서유진

개인전 2025 [시공간의 가속화 : 비-인간], 804Gallery, 안성 / **단체전** 2025 [K-Sculpture] 구미갤러리, 서울 / 2025 [수호천사展] 답십리 아트랩, 서울 / 2024 [끝은 새로운 시작] mM아트센터, 평택 / 2023 [각양각색] KOSA갤러리, 서울 / 2023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 2023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더서울라이트움, 서울 / 2023 [Flower Dance] 당림미술관, 아산 / 2023 [양재천 야외조각전] 양재천, 서울 / **작품소장**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이치현

2025 <마중물전:from> 문화공간 정담 / 2025 <foresta> 자하미술관 / 2024<날짜변경선>갤러리 코사 / 2024 <제50회 성신조각회> 김포국제조각공원 / 2023 <FUSE 상상 특목 미술관 청년 작가전>북서울 꿈의 숲 상상특목 미술관 / 2023 <모산국제조각레지던시>모산미술관

허태진

개인전 2회 / 2026 제15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2026(코엑스) / 2025 37회 대전조각가협회해외작가 초대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 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모나밸리) / 2025 역사의 터, 예술로 깨어나다Ⅱ(경당역사공원) / 2025 역사의 터, 예술로 깨어나다(열린송원광장) / 2025 제14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2025(코엑스) / 2024년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연미산자연미술공원) / 2024 <2024 도시숲예술치유어떤오감>비하우스(태화강국가정원) / 2024 제 2회 KommageneBiennale (튀르키예) / 2024 자연미술 큐브전12x12x12+자연(연미산자연미술공원) / 2024 조형아트서울 2024(코엑스) / 2024 Harmony in Creation <고요한, 허태진 2인전>

조유진

춤추는 나무 무용단 대표 / 중부대학교 예술학 박사 / 국가무형유산태평무(한영숙류) 이수자 / 전라남도무형유산 진도북놀이 전수자 / (사)벽파춤연구회 사무차장 / 한영숙춤보존회 이사 / 전)천안시립무용단 상임단원

조윤미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 인천연수구립전통예술단 안무자 / 국가무형유산태평무(강선영류) 전수자 / 전라남도무형유산 진도북놀이 전수자 / 전)천안시립무용단 단원 / 전)경기도 국악당 주역단원

더숲아카데미하우스 개관전

숲을 거닐다

발행처 더숲문화재단

발행인 탁무권

총감독 허 강

평론 김성호

발행일 2026. 4.

제 작 (주)두원

© 숲을 거닐다 2026

본 도록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